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보성군, 어촌뉴딜300 공모 사업 2개소 225억 원 확보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보성 어촌 기대



보성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어촌뉴딜300'에 지난 18일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2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지는 벌교읍 상진항과 회천면 동유항이다. 벌교읍 상진항

은 재생기반형으로 사업비 100억 원, 회천면 동유항은 수산특화형 사업으로 125억 원 확보해 총 225억 원의 사업비가 2019년부터 2년 동안 상진항과 동유항에 투입된다. '어촌뉴딜300'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촌·어항 현대화에 어촌에 기본 인프라를 정비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안전시설 설치, 여객 편의시설 구축, 어항구역 경관 개선 등 필수 기반시설 위주로 공모 사업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접안시설 현대화, 선박계류시설 확충 등 어항시설물 보강으로 낡은 어촌의 기반시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인 만큼 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에 활력이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어촌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어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해양관광활성화로 지역 경제 부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매화마을 가는 길목 명품 가로수길로 새 단장

푸조·홍가시나무 식재 사계절 감성 관광지 각광 기대



광양시는 매화축제가 열리는 섬진강변 매화마을 입구인 다압면 신원 둔치 제방도로에 명품 가로수길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가로수길은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총 사업비 7억9천7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매화마을로 가는 길목 약 1km에 신원제방 제내재(하천 제방 안) 쪽으로 우리나라 고유 진통수종인 푸조나무와 상록수인 홍가시나

무를 조화롭게 식재했다.

특히 이번에 조성한 명품 가로수길에 둔치주차장에 주차해 매화마을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에게 섬진강변과 어우러진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러 기존의 좁은 인도와 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흐름 방해와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으나 가로수길 조성으로 내년 봄 축제기간에는 교통흐름이 좀 더 원활해지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명품 가로수길을 잘 가꾸어 사계절 가족과 연인이 함께 찾는 대표적인 감성 관광지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순봉초 관광시설팀장은 "이번에 조성한 명품 가로수길에 섬진강변 리더와 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

들에게 특색 있는 힐링공간으로 사랑받게 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 섬진강뱃길복원사업이 마무리 되면 망덕포구에서 다압면 일대까지의 섬진강 하류지역이 관광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은 섬진강의 천혜 자연관광 자원을 활용한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만들기 위해 광양시, 하동군, 구례군이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85억 원을 투입해 나투터 복원 3개소, 수변센터, 강수욕장, MTB체험장, 가로수길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최근 특화공법 심사를 마친 망덕산-배알도수변공원 간 짚와이어 설치를 끝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남북 철도산업 발전·정책발굴 공론회 개최

남북 철도연결이라는 역사적 큰 전환점에서 순천시는 철도를 통한 시 발전 정책을 찾고자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공론회를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철도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연결과 순천시의 정책발굴에 관심있는 시민, 학생, 공무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전문가 김영훈 초청강사의 강연과, 임영모 시민소통과정의 시 정책발굴 제시(안)를 듣고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의견 제시로 진행됐다.

행사에 함께한 민선 7기 허석

순천시장은 "전국대 철도도시 순천시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오늘 공론회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함과 더불어 철도를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남북평화에 이바지할 좋은 계기를 만들어가길" 당부했다.

김영훈 강사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 일제에 의해 철도부설권을 빼앗기고 수탈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였다. 이에 남북한 철도연결은 단순히 감성적인 구호가 아니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빠진 채 일명 by

passing 된다면 남북한이 함께 큰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역설했다. 임영모 시민소통과정장은 "철도를 통한 시 발전정책의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장단기 목표와 함께 시민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시된 다양한 정책 중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자체 지원을 위해 시민들의 기부로 동참하는 방안과 시베리아 철도탐방 계획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순천=황경석 기자

구례 문척 중산리 가로수길, 대한민국 명품 단풍길로 변색 중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중산리 도로변 단풍나무길 정비 사업 1차 구간이 지난 15일까지 마무리 되었다. 중산마을은 중기(中基), 성자(聖子), 산차(山峙) 세 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진 12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주로 친환경 밥, 고사리 등 임산물을 재배하며 살아가는 산촌마을이다. 이곳의 유일한 진입로인 중산로

는 여름에는 주변 산야의 푸른 녹음과 깊고 맑은 계곡물이 가을에는 주민들이 직접 심은 가로수가 형형색색의 고운 단풍나무로 자라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하지만, 이 길은 겨울에는 단풍나무가 햇볕을 받기 위해 기울어져 녹지 않은 눈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길이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잡목을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하여 아름다운 중산마을의 경관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고, 햇빛이 잘 들어 겨울철에도 안전한 길이 되었다. 또한, 이번 사업의 부산물인 잡목을 겨울철 난방용 땔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일석이조, 썩 먹고 알 먹는 정비 사업이 되었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시, 올해 공영주차장 850면 조성 마무리에 총력

광양시가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민선 6기에 공영주차장 2,401면을 조성한데 이어, 민선 7기에도 공영주차장을 늘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7개소에 747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주차장 103면은 조성 중에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이순신 머거리 타운과 강남병원 뒤 상가 밀집지역에 76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상가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지난 7월 송보, 대광A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17면

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부담을 덜어줬다.

시는 광양읍, 광영동 지역이 과거 택지 개발 시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주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심지 주차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광양=황경석 기자

순천시, 개방형직위(낙안면장) 민간인 면장 최종 선정



순천시가 낙안면장에 농업회사법인 대표 신길호(51세)씨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순천시가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읍면동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민간에게 공직을 개방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주민들과 직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수용성이 높았던 낙안면과 장천동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했으며, 10월부터 적격자 공개모집에 나선 결과 총 17명(낙안면장 7, 장천동장 10)이 도전장을 내밀었지 만, 첫 번째 공모에서는 개방형직위를 살릴만한 참신한 분을 찾지 못했다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재공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순천시는 11월 재공고 후 총 13명(낙안면장 7, 장천동장 6)이 응시해, 2차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낙안면장은 2명의 적격자를, 장천동장은 적격자 없음으로 인사위원회에 통

보했다. 특히, 순천시는 주민참여형 선발 제도를 도입해 낙안면민 100여 명(주민심사단 50, 일반주민 참관 50)과 함께 낙안면장 임용후보자 2명(농업회사법인 대표, 청년 시민활동가)에 대한 직무수행계획 발표와 주민들과 질의응답한 후에 주민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순천시인사위원회에서는 1순위, 2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였고, 순천시장은 선발시험위원회 의견, 주민심사 결과,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